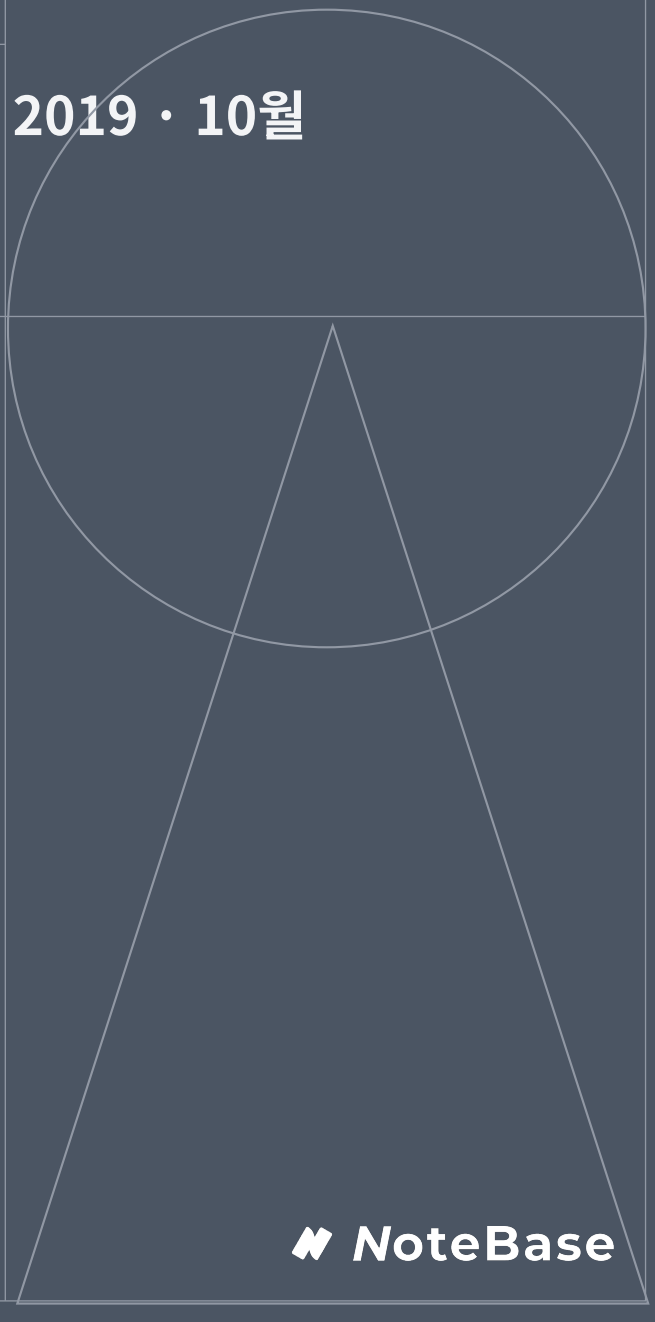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10월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10월**

**문 1.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핥다[할따]

② 밟게[밥:께]

③ 얽거나[얼꺼나]

④ 맑고[막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겹받침 'ㄻ, ㄼ, ㄺ'이 자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와, 특히 용언 어간 말음 'ㄺ'이 'ㄱ' 앞에서 예외적으로 [ㄹ]로 발음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받침 'ㄼ'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고 뒤의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뀐다.
'밟-'은 자음 앞에서 예외적으로 [밥]으로 발음되며, 뒤의 'ㄱ'도 된소리로 바뀐다.
용언 어간 말음 'ㄺ'은 보통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지만, 뒤에 'ㄱ'이 오면 예외적으로 [ㄹ]로 발음하고 뒤의 'ㄱ'은 된소리 [ㄲ]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핥다'의 받침 'ㄼ'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할다'가 바탕이 되고, 뒤의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할따]가 된다.
② O: '밟게'는 '밟-'이 자음 앞에서 예외적으로 [밥]으로 발음하는 경우이므로 [밥게]가 바탕이 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밥께]가 된다.
③ O: '얽거나'는 용언 어간 말음 'ㄺ' 뒤에 'ㄱ'이 오는 경우이므로 'ㄺ'이 예외적으로 [ㄹ]로 발음되어 [얼거나]가 바탕이 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얼꺼나]가 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막꼬]'이다. '맑고'는 용언 어간 말음 'ㄺ' 뒤에 'ㄱ'이 오는 경우이므로 'ㄺ'을 [ㄹ]로 발음해야 하여 [말꼬]가 표준 발음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ㄺ'의 기본 발음과 예외를 섞는 데 있다. '맑다[막따]'처럼 자음 앞에서 [ㄱ]으로 나는 경우만 기억하면 '맑고'도 [막꼬]로 오판하기 쉽다. 그러나 용언 어간 말음 'ㄺ'은 뒤에 'ㄱ'이 오면 [ㄹ]로 바뀐다는 예외를 따로 잡아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겹받침 문제는 먼저 받침 종류를 확인하고, 다음 소리가 무엇인지 본다. 'ㄺ'은 기본적으로 자음 앞에서 [ㄱ]이지만, 용언 어간 뒤에 '고, 게, 거나'처럼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ㄹ]로 바뀐다고 판단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맑다'는 [막따], 그러나 '맑고'는 [말꼬]이다. 'ㄺ+ㄱ'에서는 ㄱ이 아니라 ㄹ이 남는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절이 뒤 체언을 꾸미는 관형절인지, 절 전체가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명사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관형절은 절이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절이다. 결정 차이축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가이다. 키워드는 체언 수식이다.
명사절은 절 전체가 명사처럼 주어·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이다. 결정 차이축은 절 전체가 문장 성분 하나로 기능하는가이다. 키워드는 주어·목적어 기능이다.
이 문항에서는 ①, ②, ④는 관형절이고 ③은 명사절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①을 나머지와 다른 것으로 고르면 틀린다. 밑줄 친 `영수가 만든`은 뒤의 `음식`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틀린 판단은 ①을 ③과 같은 명사절로 보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①은 ②, ④와 같은 관형절이다.
2번 X: ②도 다른 것이 아니다. 밑줄 친 `영수가 한`은 뒤의 `질문`을 꾸며 주므로 관형절이다. 틀린 판단은 ②를 독립된 명사절로 보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②는 체언 `질문`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3번 O: ③은 나머지 셋과 다르다. 밑줄 친 부분은 `영수가 애쓴 사실`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여 절 전체가 명사처럼 기능한다. 따라서 ③은 명사절로 보아야 한다.
4번 X: ④도 다른 것이 아니다. 밑줄 친 `영수가 들은`은 뒤의 `소문`을 꾸미는 관형절이다. 틀린 판단은 ④를 명사절로 처리하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④는 `소문`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오답 포인트**

관형절과 명사절을 구별할 때 절 안의 서술어 모양만 보면 헷갈린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③도 겉으로는 다른 보기처럼 관형형 어미가 보이기 때문에 모두 관형절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③은 `사실`을 포함한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므로 기능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절 뒤에 바로 체언이 와서 그 체언을 꾸미면 관형절로 본다. 반대로 밑줄 친 전체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로 본다. 수식 기능인지 문장 성분 기능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관형절은 명사를 꾸미고, 명사절은 절 전체가 명사 자리로 들어간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어말 어미 '-겠-'이 문맥에서 추측을 나타내는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어말 어미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어의 의지나 장차 하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①·②·④는 상황을 근거로 어떤 일을 짐작하는 쓰임이고, ③은 주어가 스스로 하려는 뜻을 드러내는 쓰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를 근거로 비가 올 것이라고 짐작한 표현이다. '-겠-'은 추측의 기능을 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다른 하나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②·④와 같은 추측의 쓰임이다.

② X
'지금쯤'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철수가 이미 집에 도착해 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 표현이다. '-겠-'은 추측의 기능을 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의지의 쓰임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의 쓰임이다.

③ O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에서 '-겠-'은 철수가 스스로 가려는 뜻을 밝힌 표현이다. 주어의 의지, 의향을 나타내므로 나머지 셋과 기능이 다르다.

④ X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한 표현이다. '-겠-'은 추측의 기능을 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③과 같은 의지의 쓰임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조건을 근거로 한 추측의 쓰임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말하므로 모두 미래 표현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미래 시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겠-'이 드러내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다. ③의 '가겠다고 하였다'만 주어의 의지가 직접 나타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니', '지금쯤', '-겠구나'처럼 근거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말과 함께 쓰이면 추측으로 본다. 주어가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직접 밝히는 말 속에 들어가면 의지로 본다.

### 암기 포인트

'보니·지금쯤·-겠구나'의 '-겠-'은 추측이고, '내가·자기가 -겠다고'의 '-겠-'은 의지이다.

NoteBase

**문 4.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옐로카드 (yellow card), 스태프 (staff), 케이크 (cake)

② 가디건 (cardigan), 뷔페 (buffet), 캐러멜 (caramel)

③ 냅킨 (napkin), 점퍼 (jumper), 초콜렛 (chocolate)

④ 팡파레 (fanfare), 크로켓 (croquette), 마사지 (massag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반모음 표기, 어말 자음 처리, 관용으로 굳어진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yellow의 [j]는 뒤 모음과 합쳐 적으므로 '옐로'가 된다.
staff처럼 어말의 [f]는 '으'를 붙여 적어 '프'가 된다.
cake처럼 이중 모음 뒤의 어말 [k]는 받침으로 줄이지 않고 '크'로 적는다.
또한 외래어는 실제 발음과 관용 표기를 함께 보아 '카디건', '초콜릿', '팡파르'처럼 굳어진 표준형을 기억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옐로카드'는 yellow의 [j]를 '예' 계열로 적고 [ou]를 '오'로 적은 형태이므로 맞다. '스태프'는 어말 [f]에 '으'를 붙여 적은 표기이므로 맞다. '케이크'는 이중 모음 뒤의 어말 [k]를 '크'로 적은 표기이므로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디건'이다. cardigan은 첫소리 c가 /k/ 계열이므로 '카디건'이 바르다. '뷔페', '캐러멜'은 바른 표기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초콜렛'이다. chocolate의 표준 표기는 '초콜릿'이다. '냅킨', '점퍼'는 바른 표기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팡파레'이다. fanfare의 표준 표기는 '팡파르'이다. '크로켓', '마사지'는 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익숙한 발음대로 적으면 '가디건', '초콜렛', '팡파레'처럼 잘못 적기 쉽다. 이 문항은 한 묶음 안에 맞는 표기 두 개와 틀린 표기 한 개를 섞어 두어 대충 보면 모두 맞아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묶음형 외래어 문제는 먼저 관용적으로 자주 틀리는 낱말을 찾고, 그다음 반모음과 어말 자음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카디건', '초콜릿', '팡파르'처럼 자주 출제되는 표준형을 먼저 걸러 내면 오답 선택지를 빠르게 지울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옐로카드, 스태프, 케이크는 맞고, 카디건, 초콜릿, 팡파르는 표준형으로 외워 둔다.

NoteBase

**문 5.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 폿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파악하여 같은 대상을 비유한 시어와 그 대상을 떠받치는 주변 사물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에서 '아우성', '손수건', '마음'은 모두 깃발을 비유하거나 깃발에 실린 내면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반면 '폿대'는 깃발이 매달린 막대, 곧 깃대를 가리키므로 깃발 자체를 가리키는 다른 시어들과 지시 대상이 다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1번 ㄱ: X
'아우성'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깃발을 소리 없는 외침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따라서 ㄱ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깃발을 가리킨다.
틀린 판단은 'ㄱ이 가장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올바르게는 'ㄱ은 깃발을 가리켜 ㄴ, ㄹ과 같은 부류이다.'

2번 ㄴ: X
'노스탤지어의 손수건'도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따라서 ㄴ 역시 깃발을 가리킨다.
틀린 판단은 'ㄴ이 깃발과 별개의 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올바르게는 'ㄴ은 깃발을 감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3번 ㄷ: O
'퐛대 끝'의 '퐛대'는 깃발이 달린 막대, 곧 깃대를 가리킨다. 이는 깃발 자체를 가리키는 ㄱ, ㄴ, ㄹ과 달리 깃발을 지탱하는 사물을 가리키므로 가장 다르다.

4번 ㄹ: X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에서 '마음'은 깃발에 실려 공중에 달린 인간의 슬프고 애달픈 내면을 뜻한다. 문맥상 깃발로 형상화된 대상에 연결되므로 ㄹ도 깃발 쪽에 속한다.
틀린 판단은 'ㄹ이 깃발과 무관한 추상 감정만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올바르게는 'ㄹ은 깃발에 실린 인간의 내면을 가리켜 깃발의 비유적 의미와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퐛대'도 시적 분위기 속에 있어서 비유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깃발이 달린 막대를 가리키는 구체적 사물이다. 반대로 '마음'은 추상어라서 별개 대상으로 보기 쉽지만, 이 시에서는 공중에 달린 깃발의 상징적 내용으로 형상화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의 지시 대상을 묻는 문제는 먼저 시의 중심 대상을 잡고, 각 시어가 그 대상을 비유한 말인지, 그 대상의 일부나 주변 사물인지 구분하면 된다. 이 시의 중심 대상은 깃발이고, '퐛대'만 그 주변 사물인 깃대이다.

**암기 포인트**

아우성·손수건·마음은 깃발, 퐛대는 깃대이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③ 두리뭉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슷하게 쓰이는 어형들 가운데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어문 규범과 사전에 표준형으로 인정된 말이고, 비표준어는 실제 사용 여부와 별개로 규범형이 따로 있는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여직껏'처럼 익숙하게 들려도 표준형이 아닌 어형을 가려내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말아라'는 동사 '말다'의 명령형으로 표준어이다. 금지의 뜻을 나타내는 규범적인 표현이므로 문장에 그대로 쓸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여직껏'이다. 표준어는 '여태껏'이므로 '그는 여태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두리뭉실하게'는 말이나 태도가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표준어이다.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상황과도 잘 맞는다.

④ O
'주책스러운'은 형용사 '주책스럽다'의 활용형으로 표준어이다. 일정한 줏대가 없이 실없는 데가 있다는 뜻으로 쓰인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여직껏'은 실제 입말에서 자주 들려 표준어처럼 느껴지기 쉽다. 반대로 ③의 '두리뭉실하게'나 ④의 '주책스러운'은 구어적 느낌 때문에 비표준어로 오해하기 쉬운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슷하게 들리는 어형이 여럿 있으면 익숙함보다 사전의 표준형 여부를 먼저 본다. 어떤 어형이 다른 어형으로 바로잡히는 말이면 비표준어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여직껏은 X이고 여태껏은 O이다. 말아라, 두리뭉실하게, 주책스러운은 표준어이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는다.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있다'가 장소에 존재하거나 머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적 쓰임인지,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쓰임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사적 '있다'는 어떤 대상이 일정한 곳에 존재하거나 그대로 머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키워드는 존재, 머무름, 명령·청유 가능성이다.
형용사적 '있다'는 사람이나 대상이 무엇을 소유하거나 어떤 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키워드는 소유, 상태, 성질이다.
이 문항에서는 '집에 있다', '가만히 있어라', '집에 있자'처럼 머무름을 나타내면 동사적 쓰임이고, '재산이 있다'처럼 소유를 나타내면 형용사적 쓰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나는 오늘 집에 있다'의 '있다'는 장소 부사어 '집에'와 결합해 그곳에 머무는 존재를 나타내므로 동사적 쓰임이다. 따라서 이 선지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르면 틀리다. 올바르게는 '㉠에 해당한다'이다.

② O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의 '있다'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적 쓰임이다. 따라서 ㉠인 동사적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맞다.

③ X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의 '있다'는 한자리에 머무는 행동을 나타내며 명령형 '있어라'가 가능하므로 동사적 쓰임이다. 따라서 이 선지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틀리다. 올바르게는 '㉠에 해당한다'이다.

④ X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의 '있다'는 집에 머무르자는 뜻으로, 청유형 '있자'가 가능할 만큼 동작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선지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르면 틀리다. 올바르게는 '㉠에 해당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집에 있다'를 단순한 상태로만 보고 형용사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기준은 소유 상태인지, 장소에 존재·머무는 동작인지이다. ②는 소유를 나타내고, ①·③·④는 모두 머무름을 나타낸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있다' 앞뒤에 장소 표현이 붙어 존재하거나 머무는 뜻이면 동사적으로 본다. 반대로 '재산이 있다', '경험이 있다'처럼 무엇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면 형용사적으로 본다.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지도 보조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집에 있다'는 머무름이라 동사, '재산이 있다'는 소유라 형용사이다.

NoteBase

**문 8.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① 붕엇빵 - 공붓벌레

② 마굿간 - 인삿말

③ 공깃밥 - 백짓장

④ 도맷값 - 머릿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원리와 한자어 결합의 예외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표준 발음상 사잇소리가 나거나 뒤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적는 표기이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은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며, 예외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처럼 굳어진 일부뿐이다.
표준 발음에 사잇소리가 없거나 뒤말의 첫소리가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붕엇빵'은 틀린 표기이며 올바르게는 '붕어빵'이다. 뒤말이 이미 된소리 'ㅃ'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으로 표시할 대상이 아니다. '공붓벌레'는 옳은 표기이다. '공부+벌레'에서 뒤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따라서 ①은 두 낱말이 모두 틀린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O
'마굿간'은 틀린 표기이며 올바르게는 '마구간'이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인삿말'도 틀린 표기이며 올바르게는 '인사말'이다. 표준 발음에 사잇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②는 두 낱말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X
'공깃밥'은 옳은 표기이다. '공기+밥'에서 뒤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백짓장'은 틀린 표기이며 올바르게는 '백지장'이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③도 두 낱말이 모두 틀린 경우는 아니다.
④ X
'도맷값'은 옳은 표기이다. '도매+값'에서 뒤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머릿털'은 틀린 표기이며 올바르게는 '머리털'이다. 표준 발음에 사잇소리가 인정되지 않고, 뒤말 첫소리 'ㅌ'도 사이시옷 표기 대상 자음이 아니다. 따라서 ④도 두 낱말이 모두 틀린 경우는 아니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한자어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사이시옷을 적는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마구간, 백지장'처럼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은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인사말, 머리털'처럼 실제 표준 발음에 사잇소리가 없는 말도 적지 않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한자어끼리의 결합인지부터 본다. 한자어끼리이면 예외 여섯 낱말이 아닌 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그다음 혼종어·고유어 합성어는 표준 발음에서 뒤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사잇소리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한자어끼리는 원칙적으로 ㅅ을 빼고, 표준 발음에 사잇소리가 굳은 말만 ㅅ을 적는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① ㉠: 그런데, ㉡: 그랬더니, ㉢: 그래, ㉣: 그러니까
② ㉠: 그런데, ㉡: 그래, ㉢: 그랬더니, ㉣: 그러니까
③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 ㉣: 그러니까
④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러니까, ㉣: 그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접속 표현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그랬더니: 앞일을 한 뒤 그 결과로 새 사실을 발견하거나 뒤 사건이 이어질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앞말과 뒤말의 흐름을 전환하거나 예상과 다른 대조를 드러낼 때 쓰는 말이다.
그래: 앞 상황을 받아 화자의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앞말이 뒤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인과 관계를 드러낼 때 쓰는 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ㄴ의 기능이 서로 바뀌어 있다. 남자석을 바라본 뒤 아저씨를 새로 발견하는 자리이므로 ㄱ에는 결과 발견의 뜻을 가진 '그랬더니'가 들어가야 한다. 또 아저씨가 어른인데도 아이들처럼 두리번거리는 대목은 예상 밖의 대조이므로 ㄴ의 '그랬더니'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그런데'이다.
2번 X: ㄱ, ㄴ, ㄷ이 모두 어색하다. ㄱ의 '그런데'는 새 사실 발견이 아니라 단순 대조에 가까워 문맥과 맞지 않으므로 '그랬더니'로 고쳐야 한다. ㄴ의 '그래'는 대조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그런데'가 맞다. ㄷ의 '그랬더니'는 앞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화자가 상황을 받아 직접 손을 흔드는 행동으로 넘어가므로 '그래'가 자연스럽다.
3번 O: ㄱ '그랬더니'는 남자석을 바라본 뒤 아저씨를 발견하는 흐름에 맞는다. ㄴ '그런데'는 어른인 아저씨가 아이들처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낸다. ㄷ '그래'는 그 상황을 보고 화자가 손을 흔드는 다음 행동으로 이어 주기에 알맞다. ㄹ '그러니까'는 내가 손을 흔든 일이 뒤 문장인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의 원인이 되는 관계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4번 X: ㄱ과 ㄴ은 맞지만 ㄷ과 ㄹ의 자리가 바뀌어 있다. ㄷ의 '그러니까'는 앞말을 원인으로 삼아 설명하는 느낌이 강한데, 이 자리에서는 화자가 상황을 받아 즉각 행동으로 넘어가는 '그래'가 더 자연스럽다. 반대로 ㄹ은 손을 흔든 뒤 아저씨가 고개를 숙인 까닭을 잇는 자리이므로 '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가 알맞다.

### 오답 포인트

'그랬더니'와 '그러니까'를 둘 다 결과 연결로만 보면 ④처럼 ㄷ과 ㄹ을 바꾸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바라보았더니 발견함'은 관찰 결과이고, '손을 흔드니까 고개를 숙임'은 원인과 결과라는 점을 갈라서 봐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속 표현 문제는 먼저 앞뒤 문장의 관계를 결과 발견, 대조, 다음 행동, 원인·결과로 나누어 본다. 그다음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는가', '무엇이 예상과 다른가', '어떤 행동이 이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다음 결과가 생기는가'를 차례로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그랬더니는 해 보니 드러난 결과, 그런데는 전환·대조, 그래는 받아서 하는 행동, 그러니까는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말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대상의 행동과 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현실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냉소는 대상을 믿거나 끌어안지 않고 비웃듯 거리를 두는 태도이다. 이 시에서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는 새의 울음을 사람의 조소 섞인 웃음처럼 의인화하여 이 세상을 가볍게 비웃는 분위기를 만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난다면 삶이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시에서는 새 떼가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고 하여 현실과 거리를 두고 떠나는 태도가 드러난다. 틀린 표현은 '무한한 신뢰'이며, 올바르게는 '세상과 거리를 두며 이탈하려는 태도'이다.
2번: O.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는 새 울음을 비웃음처럼 들리게 만들어 세상을 향한 조소와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날아간다고 한 점도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뒷받침한다.
3번: X.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라면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아쉬워하는 감정이 나타나야 한다. 이 시의 새 떼는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상을 떼어 내어 떠나 버린다. 틀린 표현은 '타협하는 회한'이며, 올바르게는 '현실을 비웃으며 벗어나려는 태도'이다.
4번: X.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는 시련을 견디며 버티는 모습에 가깝다. 그러나 이 시의 중심 정서는 투쟁 의지보다는 현실을 조롱하며 떠나는 냉소에 있다. 틀린 표현은 '굳건한 의지'이며, 올바르게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이탈 의식'이다.

**오답 포인트**

'날아간다'만 보고 자유나 의지로 읽으면 4번으로 흐르기 쉽다. 이 문항은 이동 자체보다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라는 조소의 어조를 먼저 잡아야 하며, 그 어조가 세상에 대한 냉소를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의 표면 행동보다 그 행동에 실린 정서를 먼저 본다. 웃음, 울음, 말투가 비웃음이나 조롱으로 들리면 신뢰나 의지보다 냉소와 거리 두기 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는 현실을 긍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비웃으며 떠나는 냉소의 소리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존 어휘의 의미 변화와 새 어휘의 등장, 기존 어휘의 소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미 변화는 원래 있던 말이 대상 범위를 넓히거나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경우이다.
새 어휘의 등장은 없던 낱말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들여와 쓰이게 되는 경우이다.
어휘 소멸은 대상이나 생활 양식이 사라지면서 그 말을 거의 쓰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이모'는 원래 친족 명칭이지만 식당의 여성 종업원을 부르는 말로도 쓰여 의미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어휘의 의미 확대에 해당하므로 밑줄 친 ㉠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② X
'통닭' 대신 '치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어휘의 의미 변화가 아니라 다른 어휘가 널리 쓰이게 된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외래어 계열의 새 어휘가 기존 표현을 대체한 경우이다.

③ X
'아점'은 '아침'과 '점심'을 합쳐 만든 새말이다. 틀린 표현은 밑줄 친 ㉠의 예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난 경우이다.

④ X
'마마'는 천연두와 관련하여 쓰이던 말이 대상의 소멸과 함께 거의 쓰이지 않게 된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의미 변화의 예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기존 어휘가 소멸하거나 쇠퇴한 경우이다.

### 오답 포인트

보기에는 '기존 어휘의 의미 변화'와 '아예 새로운 어휘의 등장'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③처럼 새말이 생긴 사례를 ㉠과 혼동하거나, ②처럼 표현이 바뀐 것을 의미 변화로 오해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래 있던 낱말이 같은 형태로 다른 대상을 더 가리키면 의미 변화이고, 형태 자체가 새로 만들어졌거나 다른 말이 들어오면 새 어휘의 등장이다. 아예 쓰이지 않게 되면 어휘 소멸로 판단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기존 말의 쓰임이 넓어지면 의미 변화, 새 낱말이 생기면 새 어휘, 말이 사라지면 어휘 소멸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① 목청, 'ㅇ'과 'ㅎ'
② 윗잇몸, 'ㄴ'과 'ㄷ'
③ 센입천장, 'ㄱ'과 'ㅋ'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ㅈ'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훈민정음 자음의 제자 원리를 현대 국어의 조음 위치와 연결해, 같은 조음 위치의 기본자와 가획자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훈민정음 자음은 소리 나는 자리를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같은 계열의 소리는 획을 더해 파생시켰다.
ㄴ과 ㄷ은 모두 윗잇몸소리이며, ㄷ은 ㄴ에 획을 더한 글자이다.
현대 조음 위치 기준에서 ㄱ·ㅋ·ㅇ은 여린입천장소리, ㅎ은 목청소리, ㅅ은 잇몸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목청, ㅇ과 ㅎ'이다. 현대 조음 위치 기준에서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고 ㅎ은 목청소리이므로 같은 조음 위치의 예가 아니다.
② O: ㄴ과 ㄷ은 모두 윗잇몸소리이다. ㄷ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므로, 같은 조음 위치의 소리가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예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센입천장, ㄱ과 ㅋ'이다. ㄱ과 ㅋ은 센입천장소리가 아니라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여린입천장, ㅅ과 ㅈ'이다. ㅅ은 잇몸소리이고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므로 같은 조음 위치의 예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사실만 보고 같은 조음 위치라고 단정하면 틀리기 쉽다. ㅇ-ㅎ, ㅅ-ㅈ처럼 글자 계열은 이어져 보여도 현대 조음 위치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슷한 글자 모양을 보기 전에 두 자음의 현대 조음 위치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본자와 가획의 관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윗잇몸은 ㄴ-ㄷ, 여린입천장은 ㄱ-ㅋ-ㅇ, 목청은 ㅎ, ㅅ은 잇몸, ㅈ은 센입천장이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 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동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형태의 단어가 문장 속 기능에 따라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는지, 특히 명사·부사·의존 명사·조사·형용사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사는 사람·사물·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체언이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며 시간·정도·양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의존 명사는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뜻이 완성되는 명사이다.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속 관계나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기능어이다.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이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용언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첫 번째 '오늘'은 날짜 이름으로 쓰여 주어 자리에 놓였으므로 명사이다.
두 번째 '오늘'은 '할'을 꾸며 언제 할 일인지를 나타내므로 부사이다.

② O
첫 번째 '만큼'은 '먹을'의 꾸밈을 받아야 뜻이 완성되므로 의존 명사이다.
두 번째 '만큼'은 '철수' 뒤에 붙어 비교의 뜻을 나타내므로 조사이다.

③ O
첫 번째 '비교적'은 '편리하다'를 꾸며 정도를 나타내므로 부사이다.
두 번째 '비교적'은 '비교적인 관점'에서 체언 자격으로 쓰여 관형형으로 이어지므로 명사로 볼 수 있다.

④ X
두 예문 모두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은 '굳다'이다.
첫 번째 '혀가 굳어'의 '굳다'는 혀가 뻣뻣하게 되는 변화·작용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따라서 '[형용사]'라는 품사 표시는 잘못이다.
두 번째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의 '굳다'는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인색함)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따라서 '[동사]'라는 품사 표시도 잘못이다.
같은 '굳다'인데도 두 예문의 품사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모두 잘못되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형용사와 동사는 둘 다 활용하므로 어미 형태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 '혀가 굳어'의 '굳다'는 혀가 뻣뻣하게 되는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형용사로, '사람됨이 굳고'의 '굳다'는 재물을 아끼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동사로 표시되어 두 품사 표시가 서로 뒤바뀌었다. 또한 '오늘', '만큼', '비교적'처럼 문맥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단어를 고정된 품사로만 외우면 실수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기본형으로 돌린 뒤 문장에서 이름 노릇을 하는지, 다른 말을 꾸미는지, 체언 뒤에 붙는지, 성질·상태를 나타내는지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활용한다고 모두 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작인지 상태인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오늘은 문맥에 따라 명사·부사가 되고, 만큼은 의존 명사·조사가 되며, '굳다'는 뻣뻣하게 되는 변화를 나타낼 때는 동사, 재물을 아끼는 성질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이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여요.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의 지시 대상을 문맥으로 파악하여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과 다른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시 대상은 시어가 실제로 가리키는 인물이나 상태이다.
이 작품에서 ㉠ '나무'는 변함없이 있기를 바라는 '도련님'을 비유하고, ㉡ '검은 물'·㉢ '구름'·㉣ '소나기'는 죽어서도 임 곁에 가려는 '춘향 또는 춘향의 넋'을 바꾸어 나타낸 표현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은 도련님을 비유한 표현이다.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으므로 화자가 안녕하기를 비는 대상은 도련님이다.
② X: ㉡ '검은 물'은 춘향 자신이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죽은 뒤에도 도련님 곁에 있겠다는 뜻이므로 ㉢·㉣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틀린 판단은 '㉡이 도련님을 가리킨다'는 해석이고, 올바르게는 춘향 또는 춘향의 넋을 가리킨다.
③ X: ㉢ '구름'도 춘향이 다른 형태로 도련님 곁에 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뒤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와 이어지므로 ㉣과 직접 연결된다. 틀린 판단은 '㉢이 별개의 자연물만을 뜻한다'는 해석이고, 올바르게는 춘향 또는 춘향의 넋을 가리킨다.
④ X: ㉣ '소나기' 역시 구름에서 이어진 춘향의 변신된 모습이다. 도련님 곁에 퍼붓는 순간에도 춘향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틀린 판단은 '㉣이 단순한 날씨 변화만 뜻한다'는 해석이고, 올바르게는 춘향 또는 춘향의 넋을 가리킨다.

### 오답 포인트

자연물 자체만 보면 ㉠·㉡·㉢·㉣이 모두 비슷한 비유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시 대상은 문장 속 서술어와 화자의 태도로 갈린다. '안녕히 계세요'의 대상은 도련님이고, '흐르거나 날더라도' '거기 있을 거여요'의 주체는 춘향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유어가 나오면 그 말 앞뒤에서 누가 그렇게 되거나 누구에게 그 행동이 향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화자가 안녕을 비는 대상인지, 화자 자신이 변신하여 닿으려는 대상인지를 가르면 지시 대상이 정리된다.

### 암기 포인트

㉠은 임, ㉡·㉢·㉣은 임에게 가려는 화자라는 구도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바짝 존 찌개를 다시 끓였다.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랗네.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불규칙 활용과 어미 선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ㄹ 탈락 활용은 어간 끝 받침 ㄹ이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서 탈락하는 활용이다.
ㅎ 불규칙 활용은 어간 끝 ㅎ이 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유지되거나 탈락하는 활용이다.
르 불규칙 활용은 어간 끝 '르'가 '-아/어' 계열 어미 앞에서 탈락하고 앞 음절에 ㄹ이 더해지는 활용이다.
어미 선택은 기본형을 복원한 뒤 어간 말음과 어미의 형태를 맞추어 적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밑줄 친 '존'의 기본형은 '졸다'로, 찌개의 국물이 바짝 줄어든다는 뜻이다. '졸다'는 어간 '졸-'의 받침 ㄹ이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서 탈락하는 ㄹ 탈락 용언이므로 '졸- + -ㄴ'이 '존'이 되어 '존'이 맞다. '바짝 존 찌개'는 국물이 거의 졸아든 찌개라는 뜻으로 자연스럽다.
② O: 밑줄 친 '노라네'의 기본형은 '노랗다'로 ㅎ 불규칙 용언이다. 2015년 표준어 규정 개정으로 ㅎ 불규칙 형용사가 어미 '-네'와 결합할 때 ㅎ을 탈락시킨 형태도 표준으로 인정되어 '노라네'와 '노랗네'가 모두 맞다. 따라서 '노라네'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곧바라야'이다. '곧바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아야' 앞에서 '르'가 탈락하고 앞 음절에 ㄹ이 더해져 '곧발라야'가 된다.
④ O: '저러다'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연결 어미 '-나'가 붙어 '저러나'가 맞다. '저렇나'처럼 적는 것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기본형을 '곧바르다'로 복원하지 못하고 소리 나는 대로 '곧바라야'로 적기 쉬운 점이 함정이다. ④도 '저러다'와 '저렇다'를 섞으면 흔들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용형 표기를 묻는 문항은 먼저 기본형을 복원한 뒤 어간 끝이 ㄹ인지, ㅎ인지, 르인지와 붙는 어미가 모음 시작인지 자음 시작인지 확인하면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졸다는 존, 노랗다는 노라네(노랗네), 곧바르다는 곧발라야, 저러다는 저러나로 활용된다.

NoteBase

**문 16.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1>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기 2>
(가)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라)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명문의 전개 순서에서 결과 제시, 비교 검증, 의미 해석, 확장 주장 순서를 파악하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라) — 연구 결과로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가 증가하는 패턴을 발견한 내용을 먼저 제시한다.
2. (나) — 앞에서 확인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가) — '다시 말해'로 앞 문장의 뜻을 풀어 실제 독감 환자 수와 유행 지역 예측 가능성을 설명한다.
4. (다) — 앞의 연구가 갖는 의미를 넓혀 개인 정보와 진료 정보가 결합될 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왜 이 순서: (라)의 '그 결과'는 연구 수행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결과 제시이고, (나)의 '이러한 패턴'은 (라)의 검색 증가 패턴을 받아야 한다. (가)의 '다시 말해'는 (나)의 상관관계를 풀어쓴 문장이며, (다)의 '이는'은 앞의 연구 결과 전체를 받아 결론으로 이어진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가)를 맨 앞에 두면 '다시 말해'가 받아 줄 앞 문장이 없어 연결이 끊긴다. 틀린 부분은 첫 단계의 (가) 배치이다. 올바르게는 (라)로 결과를 먼저 제시한 뒤 (나)와 (가)로 이어진다.
2번 X: (가)는 (나)의 상관관계를 풀이하는 문장이므로 (나)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부분은 (가)-(라)-(나)의 배열이다. 올바르게는 (라)-(나)-(가)-(다)이다.
3번 X: (라) 다음에 곧바로 (가)를 두면 '다시 말해'의 대상이 빠진다. 틀린 부분은 (라) 다음의 (가) 배치이다. 올바르게는 (라) 뒤에 (나)를 두어 비교 검증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4번 O: (라)에서 검색어 증가 패턴을 제시하고, (나)에서 그 패턴을 외부 데이터와 비교해 상관관계를 확인한 뒤, (가)에서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고, (다)에서 활용 가능성까지 확장하므로 자연스럽다.

### 오답 포인트

'다시 말해', '그 결과', '이러한 패턴', '이는' 같은 담화 표지를 놓치면 순서를 쉽게 바꿔 잡는다. 특히 (가)는 내용상 설명 문장이라 앞에 두기 쉬우나, 실제로는 (나)의 상관관계를 다시 풀어 주는 자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는 접속 표현이 가리키는 선행 내용을 먼저 찾고, 지시어가 받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마지막에 결론이나 확장 주장이 오는지를 점검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결과 제시 → 비교 검증 → 뜻풀이 → 결론 확장의 흐름으로 읽으면 순서 문항의 핵심이 잡힌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꼭두쇠'는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꼭두쇠는 남사당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단원 가운데 ㉠ 규율을 어긴 단원에 대해 형벌을 명령하는 것도 꼭두쇠이다. 꼭두쇠가 ㉡ 노쇠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단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단원들의 ㉢ 추대로 새로운 꼭두쇠를 ㉣ 선출한다.

① ㉠ - 規律
② ㉡ - 老衰
③ ㉢ - 推戴
④ ㉣ - 先出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정확한 표기를 가려 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율은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을 뜻하므로 規律로 쓴다.
노쇠는 늙어서 쇠약해짐을 뜻하므로 老衰로 쓴다.
추대는 여러 사람이 받들어 윗자리로 밀어 올림을 뜻하므로 推戴로 쓴다.
선출은 여럿 가운데서 가려 뽑음을 뜻하므로 選出이 맞고, 先出은 먼저 나감이라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ㄱ의 '규율'은 규칙과 질서를 뜻하는 말이므로 規律이 맞다.
2번 O: ㄴ의 '노쇠'는 늙어서 쇠약해짐을 뜻하므로 老衰가 맞다.
3번 O: ㄷ의 '추대'는 받들어 윗자리로 밀어 올린다는 뜻이므로 推戴가 맞다.
4번 X: ㄹ의 '선출'은 사람을 가려 뽑는다는 뜻이므로 先出이 아니라 選出이 맞다. 틀린 표현은 '先出'이고, 올바르게는 '選出'이다.

**오답 포인트**

'선출'의 소리만 보고 '먼저 선(先)'을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음이 아니라 문맥 속 뜻을 먼저 파악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 문제는 낱말의 한글 뜻을 먼저 풀어 본 뒤 그 뜻에 맞는 한자를 대응시키면 된다. '선출하다'는 '먼저 나가다'가 아니라 '가려 뽑다'이므로 選出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뽑는 선출은 選出, 먼저 나감은 先出이다.

NoteBase

**문 18. <보기>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러한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은 호흡이었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쉼이 한배의 틀이 된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量息尺)이라고 불렀다. '숨을 헤아리는 자(尺)'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방법은 우리 음악에서 한배와 이에 근거한 박절을 있게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시계가 없었던 당시에 선인들은 건강한 사람의 맥박의 6회 뜀을 한 호흡(一息)으로 계산하여 1박은 그 반인 3맥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호흡을 2박으로 하여 박자와 한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였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분에 70회 전후로 맥박이 뛴다고 한다. 이에 의해 그들은 맥박 1회를 1박의 기준으로 하였고, 1분간에 70박 정도 연주하는 속도를 그들 템포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서 1분간 울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안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말이 되었다.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이 두 대상의 기준과 특징을 분석한 뒤 대조하는 서술 방식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장과 실례의 방식은 필자의 주장을 먼저 세우고 예시로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대립 견해와 제3견해의 방식은 상반된 입장을 검토한 뒤 새로운 견해나 절충안을 내놓는 방식이다.
분석과 대조의 방식은 대상의 성격이나 기준을 설명한 뒤 서로 대비하여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사례와 해결책의 방식은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이다. 제시문은 어떤 명제를 주장하고 예시로 입증하는 글이 아니라, 우리 음악은 호흡을 기준으로 하고 서양 음악은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비한다. 올바르게는 '두 음악의 시간 기준을 분석하고 대조하여 특징을 제시한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와 '제3의 견해'이다. 제시문에는 찬반처럼 맞서는 견해도 없고, 그것을 검토해 새 견해를 도출하는 흐름도 없다. 올바르게는 '두 대상의 기준 차이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다'이다.
③ O: 제시문은 우리 음악의 한배가 호흡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는 점과 서양 음악의 템포가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각각 분석한 뒤, 두 기준을 대조하여 특징을 드러낸다.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이다. 제시문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글이 아니라 음악적 시간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다. 올바르게는 '두 음악의 리듬 기준을 설명하고 대비하여 차이를 드러낸다'이다.

###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이 모두 등장하므로 막연히 '예시를 든 글'로 보기 쉽다. 그러나 이 글의 중심은 사례 제시가 아니라 두 대상의 기준인 호흡과 맥박을 나누어 설명하고 대비하는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방식 문제는 먼저 글이 주장 입증형인지, 견해 대립형인지, 비교 대조형인지, 문제 해결형인지 중심 흐름을 본다. 두 대상이 각기 어떤 기준으로 설명된 뒤 차이가 드러나면 분석과 대조의 방식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두 대상을 각각 설명한 뒤 차이를 드러내면 분석 후 대조의 방식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관습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업적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산되고 책값 역시 저렴해졌을 뿐 아니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쇄술의 발달이 지식의 독점 구조를 약화시키고 독학과 비판적 독서를 가능하게 했다는 흐름을 읽어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쇄술 이후의 지식 제도는 학교·교사·주해자에게 집중되던 지식 권위가 약해지고, 책을 통한 독학과 여러 텍스트의 대조·검증이 가능해진 체계이다.
권위주의적 지식 구조는 특정 학설·학파·저자·교사가 지식을 독점하고 독자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체계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은 책의 양산과 유통 확대로 여러 텍스트를 비교·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특정 학설이나 학파가 지식을 독점하며 전횡하기는 어려워지고, 권위주의적 행보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② X: 틀린 부분은 "교사의 권위는 … 더욱 공고해졌다"이다. 지문은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 가장 현저한 변화가 생겼고,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교사에 대한 의존과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이다. 지문은 다양한 책의 등장으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가 약화되고, 공개적 검토가 쉬워졌다고 이해해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와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다. 지문은 여러 텍스트를 대조·비교하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하므로 특정 저자의 권위가 절대화되거나 독자가 수동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독서 대중의 비판적·능동적 독서가 가능해졌다고 정리하는 편이 맞다.

### 오답 포인트

지문에는 '책'이 중심에 오르므로 권위가 더 강해졌다고 성급히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핵심은 책의 보급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학교·교사·주해자 중심의 권위가 약해지고, 여러 텍스트 비교를 통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체 발달을 다룬 지문에서는 누가 지식을 독점하는가와 독자가 비교·검증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본다. 독학 가능, 여러 텍스트 비교, 비판과 검증이 나오면 권위의 강화보다 탈독점과 능동적 수용 쪽으로 판단된다.

### 암기 포인트

인쇄술의 핵심 효과는 책의 증산 자체보다 지식의 탈독점, 독학 가능, 비판적 독서의 확대이다.

NoteBase

**문 20.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자성어의 핵심 뜻을 비교하여 같은 의미 부류와 다른 의미 부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란지교는 벗 사이의 고상하고 향기로운 사귐을 뜻한다.
금란지계는 매우 굳고 친밀한 우정을 뜻한다.
문경지교는 벗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사귐을 뜻한다.
단순호치는 붉은 입술과 흰 이를 이르는 말로,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란지교는 뜻이 나머지와 다르지 않다. 벗 사이의 아름답고 고결한 사귐을 뜻하는 우정 관련 성어이므로, 틀린 표현은 '가장 다른 하나'이고 올바르게는 '나머지와 뜻이 비슷한 하나'이다.
② X: 금란지계도 뜻이 나머지와 다르지 않다. 매우 굳고 친밀한 우정을 뜻하는 우정 관련 성어이므로, 틀린 표현은 '가장 다른 하나'이고 올바르게는 '나머지와 뜻이 비슷한 하나'이다.
③ X: 문경지교 역시 뜻이 나머지와 다르지 않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귐을 뜻하는 우정 관련 성어이므로, 틀린 표현은 '가장 다른 하나'이고 올바르게는 '나머지와 뜻이 비슷한 하나'이다.
④ O: 단순호치는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를 뜻한다. 앞의 세 성어가 모두 우정을 뜻하는 데 비해 ④는 외모를 뜻하므로 의미 범주가 가장 다르다.

**오답 포인트**

지란지교, 금란지계, 문경지교는 모두 우정과 사귐을 뜻하는 성어인데, 글자 모양이 낯설어 개별 뜻을 외형으로만 구분하면 헷갈리기 쉽다. 단순호치는 사람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을 잡아내면 정답이 분명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 유의어 구별 문제는 먼저 뜻의 큰 범주를 묶어 보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①~③을 우정, ④를 외모로 나누면 바로 답이 정리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란·금란·문경은 모두 벗의 사귐이고, 단순호치는 얼굴의 아름다움이다.

NoteBase